

◆ 특 집 ◆

중전기기의 수출입 동향분석

산 업 자 원 부
과 장 이 우 공

1. 서 론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수출입 현황은 '95년을 고비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수출증가율 0.2%, 수입증가율은 -5.9%를 기록하고 있고 금년도 초반기에는 수출이 다소 호조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2/4분기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부진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수입은 년초부터 부진하여 계속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11월의 IMF사태 이후부터 심화되기 시작하여 금년 4월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국제무역환경은 세계경기의 침체와 동남아국가의 외환위기로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일본의 경기침체로 아시아권의 수출입 하향세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고 금년말까지는 아시아권의 수출입 상황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와 같이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주로하는

나라는 수출이 매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더욱이 일본 엔화의 가치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수출은 하반기에도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중전기기 제품은 대부분 경제의 성장과 함께 설비투자와 거기에 소요되는 전력시설의 건설에 소요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경기가 침체되어 설비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전기기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수출은 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들이 경기후퇴에 따른 전력설비의 시설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최소화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중국, 태국, 베트남 등지에 투자한 회사들이 값싸고 품질좋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들 국가에 현지공장을 많이 건설하여 값싼 제품을 생산하

고 있어 수출은 날이갈수록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도 경기침체와 함께 설비투자가 대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내 중전기 생산량의 65% 정도를 구매하는 한국전력도 최근 자금사정이 악화되는데다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설비의 과잉으로 중전기기의 수요가 없어 구매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전기 업체들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 있어서도 수입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수입은 전년 물량보다 무려 40~50%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적인 환경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탄생으로 인한 수입의 개방으로 우리나라는 불가피하게 국제 경쟁체제에 흡수되는데다 정보통신기기협상에 따른 관세무세화(현재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최소한 8%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0년부터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짐) 등 우리가 아직 기술과 품질면에서 경쟁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화와 개방화가 너무 빨리 도입되었고 기술라운드, 환경라운드 등이 또다른 한편으로 우리 시장의 개방을 압박해 오고 있어 수입은 늘어나고 이로 인한 내수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우리 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고 상표인지도 마저 떨어져 수출도 부진하고 국내에서도 외국 제품에 밀려 잘 안팔린다고 한다. 물론 그에 대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 하던 품질과 가격 그리고 상표인지도 면에서 우리 제품이 외국의 제품에 밀리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며, 특히 우리 제품이 지금까지 디자인에 소홀하여 디자인면에서도 외국 제품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중전기기는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업체들도 제품의 디자인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으나 '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중전기기에도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되어 새로운 모델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 업체들은 정부의 수입억제정책 아래에서 내수안주라는 쉬운 방안으로 성장하였고 중소기업들은 단체수계약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업체의 전문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보다는 업체의 난립과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기 때문에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국영기업체나 대기업체에서는 국산제품에 대한 인식도 저하와 국산 신제품에 대한 품질 및 신뢰성을 믿지 못하고 외국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 국산제품을 외면한 것도 국산제품의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약화시킨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외국제품을 사용하다 기기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한 것처럼 크게 문제삼지 않지만 국산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제품을 구매 또는 사용결정을 한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순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쉽게 국산제품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도 업체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그리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한가지 큰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중전기산업은 초기부터 모든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여 왔고 기술개발 보다는 기술도입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원천적인 우리의 기술이 없고, 중전기기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기술개발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며, 주문 생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술개발을 기피해온 것도 오늘날의 중전기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최근에 각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장의 자동화, 제품의 품질향상, 인력 감축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국제화, 개방화라는 거대한 물결속에서 부족한 경쟁력의 원천을 향상 시키려는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전기산업의 국제환경은 전기산업이 전자산업, 기계산업 등과 믹스되면서 전기산업인지, 전자산업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의 등장으로 전기·전자산업과 정보산업과의 한계도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자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한계가 불명한 것이 오늘날의 전기산업이다.

게다가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술보호를 강화하면서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들에게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국가에는 기술이전을 철저히 기피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술을 일본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초고압기기나 대용량기기 및 첨단기기 등에 대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커지고 있는 반면에 아시안 개발도상국가들과는 기술격차 점점 좁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기산업은 아래위로 위협을 받고 있다.

생산업체에 있어서는 북미나 유럽은 기업의 대형화와 다국적화 및 M&A로 생산원가 절감, 시장의 선점화 및 기업간의 제휴 등으로 경쟁의 우위권 확보와 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전문성 보다는 다양성, 국제경쟁 보다는 내수경쟁, 기술개발 보다는 기술도입에 치중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국제 기술개발 동향이나 신상품개발 및 상품의 패손화 등 경쟁력에 관련된 시장정보에 매우 어두우며, 언어장벽과 마케팅 능력

의 부족으로 시장개척 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류비 상승, 국제적인 시험·검사능력 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중전기산업은 고급제품은 선진국에 밀려 이제까지 중·저급 제품에 경쟁력을 집중시켜 왔으나 후발공업국과 중국 등이 중·저급 제품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위협하고 있고, 외국업체의 동남아 현지공장 신증설로 우수제품이 값싸게 생산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제품은 생산원가 상승으로 경쟁력마저 떨어져가고 있어 미국과 일본의 무역적자를 동남아에서 매꾸어나아갔으나 이제는 오히려 동남아시아를 중국 등 아시아 후발공업국에 넘겨주어야 할 위기적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과 수입선다변화 정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이제 종료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우리 업계가 국내외에서의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건전한 경쟁으로 전환하고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국내외의 수출입 동향을 점검해 보았지만 당분간은 국제경제 사정이 크게 호전될 것 같지는 않고,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회장 그린스펀이 아시아 경제의 악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환율안정과 경제회복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도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금년만 잘 넘기면 내수와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전기기의 범위

중전기기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중전기기의 품목범위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조직개편이나 품목분류 변경 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따라 공산품의 수급통계가 달라지고 있어 그때마다 통계자료에 대한 혼란으로 실무적으로나 연구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의 기록 및 유지는 우리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산업의 발전을 분석·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중전기기의 범위는 정부의 업무분장 변화에 따라 다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크게는 전원용 전기기기와 산업용 전기기기로 분류하고 있지만 전선이 중전기기나 아니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일단 전선을 중전기기에 포함시켜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중전기기의 통계자료를 전선과 중전

기기를 따로 작성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순 통계자료를 다루거나 학회지나 월간지 등에는 전선을 제외한 중전기기만 취급하고 있으며, 전기연감 같은데는 중전기기와 전선을 한데 묶어 중전기기로 나타내고 있다.

'95년 이후 중전은 발전기, 전동기, 전동공구,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및 부분품, 배전 제어장치, 변환장치, 전기로 및 가열기, 전기용접기, 전압조정용기기, 전극 및 전자석, 애자류, 기타 전기기기(전기기기 절연용 물품, 적산용계기, 전기도금 및 분해용기기, 접속용기기, 기타 전기식 부분품)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도 위의 14개 품목의 중전기기에 대한 수급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중전기기 수출입동향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91년부터 '97년까지 수출은 연평균 13.5%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연평균 8.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91년도에 21.6%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92년에는 -0.6%의 성장으로 급강하 하였으며 '93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여 '95년에는 전년대비 28.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97년에는 하반기의 수출 둔화로 '96년도와 같은 수준의 수출을 유지하였으며, 수입은 '91년에는 41.3%의 높은 증가 이후 갑자기 둔화세를 나타내어 '93년에는 1.3%

의 증가세에 머무렀으나 '94년에는 24.1%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96년의 28.1%를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96년에는 3.9%로 급격히 줄어 들었고 '97년에는 -5.6%의 감소세로 나타나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크게 줄어 들었다.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그 증가폭은 차이가 있지만 증가세나 둔화세가 같은 해에 동시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즉,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호황을 이루면 수출도 증가되고 수입도 증가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세계의 경제가 침체상태로 되면 수출이나 수입 모두가 함께 침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94, '95년에는 비교적 호황을 누려왔으나 '96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97년에는 빠른 속도로 경기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내수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가져왔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초부터 아시아의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에 IMF라는 긴급 경제처방 이후 급속도로 경제가 침체되어 금년에 들어와서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가 설비투자나 설비의 개보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수입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으며 수

출도 크게 줄어 들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우리나라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수출과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금년도 상반기의 수출은 '97년도 상반기 수출액 536백만불보다 무려 12%인 63백만불이나 감소한 437백만불이었으며, 수입은 '97년도 상반기 수입액 1,496

백만불보다 무려 44.8%인 670백만불이나 감소한 826백만불이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크게 호전될 것 같지는 않으며 따라서 수출이나 수입도 전년도 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중전기기 연도별 수출입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1~6)	년평균증가율 ('91~'97)
수 출	541	538	604	743	957	1,154	1,155	473	13.5
증가율	21.6	-0.6	12.3	23.0	28.8	20.6	0.1	-11.8	
수 입	1,653	1,729	1,760	2,185	2,820	2,931	2,766	826	8.9
증가율	41.3	4.6	1.8	24.1	28.1	3.9	-5.6	-44.8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

《 수 출 》

중전기기의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변압기, 발전기, 변환장치,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전기용접기, 차단기, 전동공구 등의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으며, 국별로는 중국, 일본,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의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국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은 '93년까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였으나 '94년부터는 미국에의 수출이 격감한 반면에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의 수출이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는데 '94년 부터는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중전기기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나라로 등장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중전기기 수출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96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2위의 수출 국가로 부상했으며 중남미의 수출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 수출이 부진하게 된 이유는 초소형·경량화 제품과 첨단제품의 개발이 부진하고 중급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는 대

부분이 외국인 투자회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제품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좋고 품질도 우수하며 특히 가격경쟁력이 우수하여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3~4년 사이에 연평균 83%의 초고도 수출성장 대상국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10위권 밖에서 두 번째의 고객으로 등장하여 우리나라 중전기 생산업체에 활기를 더 해주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성장세가 꾸준히 계속되어 금년도 상반기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일본,

미국, 홍콩, EU,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의 순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60%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다음이 일본으로 연평균 17.6%의 성장을 하였고, EU가 연평균 13.1%, 말레이시아가 연평균 12.5%, 홍콩도 11.2%의 성장을 하였으나 미국은 연평균 3%의 성장에 그쳤고 싱가폴은 계속 하락하여 연평균 24%의 감소를 가져왔다.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중전기기의 수출이 많은 일본,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감소세를 보였으며, 중국, EU, 싱가포르, 대만 등은 수출 증가세를 보여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중전기기의 국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년 도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말련	EU	싱가폴	대만	기타	계
'93	105	30	137	53	43	41	33	21	142	605
'94	145	51	120	61	39	51	40	19	217	743
'95	180	90	153	80	68	77	50	22	237	957
'96	234	184	165	99	94	64	26	24	264	1,154
'97	201	196	155	81	69	67	18	30	338	1,155
'98(1~6)	72	82	63	33	22	30	17	19	133	473
년평균증가율(93~97)	17.6	59.9	3.1	11.2	12.5	13.1	-24.1	9.3	24.2	17.5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

지난해에 수출이 가장 많았던 일본이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보다 31.1%나 적은 33백만불의 수출이 감소하였고 주 수출대상국중 미국이 전년동기보다 10.2%인 8백만불, 홍콩이 16.2%인 6백만불이나 감소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전년동기보다 40.5%인 14백만불이나 감소하였다.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 전년동기보다 2%인 2백만불이 증가하였고 수출이 5번째로 많은 EU는 전년동기보다 1.7%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7번째 수출국인 대만은 전년동기보다 52.2%인 6백만불이 증가하였고 8번째 수출국인 싱가포르도 전년동기보다 무려 113.8%인 9백만불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별 수출비중을 보면 중국이 전체 수출의 17.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이 전체 수출의 15.2%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이 13.3%를 점유

하여 이 3개국이 전체 수출의 45.8%를 점유하고 있다.

홍콩은 전체 수출의 7%를 점유하고 있으며 EU가 6.3%, 말레이시아가 4.6% 그리고 대만도 4%나 점유하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중의 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변압기가 179백만불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 다음이 발전기로 46백만불이 수출되었고 변환장치도 46백만불이 수출되었다. 배전제어장치는 42백만불이 수출되었고 전동기가 34백만불, 전기가열기가 30백만불, 차단기가 17백만불 그리고 전동공구도 15백만불이 수출되었다.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인 변압기는 '93년에는 총 수출액의 43.7%를 점유하였고 '95년에는 38.6% 그리고 '97년에는 36%를 점유하여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이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출 주력 제품으로 자

〈표 3〉 동기대비 국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국 별	일 본	중 국	미 국	홍 콩	말레이	EU	싱가폴	대 만	기 타	계
'97. 1~6 (점유율)	105 (19.6)	80 (14.9)	71 (13.2)	39 (7.3)	36 (6.7)	30 (5.6)	8 (1.5)	13 (2.4)	128 (23.9)	536 (100)
'98. 1~6 (점유율)	72 (15.2)	82 (17.3)	63 (13.3)	33 (7.0)	22 (4.6)	30 (6.3)	17 (3.6)	19 (4.0)	133 (28.1)	473 (100)
증 감 (증감율)	-33 (-31.1)	2 (2.1)	-8 (-10.2)	-6 (-16.2)	-14 (-40.5)	- (1.7)	9 (113.8)	6 (52.2)	5 (3.9)	-63 (-12.0)

주) 증감은 '97대비 '98 증감임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

리잡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전체 수출 37.8%를 점유하여 전년보다 다소 높아졌다.

두 번째 수출 주력제품인 변환장치는 '93년에는 총 수출액의 4.9%를 점유하였고 '95년에는 12.0% 그리고 '97년에는 14.8%를 점유하여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전체 수출의 9.7%를 점유하여 전년보다 점유율이 다소 낮아졌다.

배전제어장치는 3번째 수출 주력제품으로 '93년에는 총 수출액의 7.3%를 점유하였고 '95년에는 9.0% 그리고 '97년에는 11.7%를 점유하여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전체 수출의 9%를 점유하여 전년보다 점유율이 다소 낮아졌다.

전동기는 '93년에는 총 수출액의 7.6%를 점유하였고 '95년에는 6.2% 그리고 '97년에는 5.8%를 점유하여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전체 수출의 7.2%를 점유하여 전년보다 점유율이 다소 높아졌으며, 발전기는 '93년에는 총 수출액의 5.1%를 점유하였고 '95년에도 5.1% 그리고 '97년에는 8.1%를 점유하여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전체 수출의 9.7%를 점유하여 전년보다 점유율이 다소 높아졌다.

전기용접기는 '93년에는 총 수출액의 4.0%를 점유하였고 '95년에는 6.8%로 증가하였으나 '97년에는 4.5%를 점유하여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전체 수출의 6.3%를 점유하여 전년보다 점유율이 다소 높아졌다.

차단기는 '93년에는 총 수출액의 2.6%를 점유하였고 '95년에는 3.4% 그리고 '97년에는 3.1%를 점유하여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전체 수출의 3.6%를 점유하여 전년보다 점유율이 다소 높아졌고 전동공구는 '93년에는 총 수출액의 4.0%를 점유하였고 '95년에도 6.2%로 증가하였으나 '97년에는 3.2%를 점유하여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전체 수출의 3.2%를 점유하여 전년과 대등한 수준을 보였다.

금년 상반기중의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변압기는 전년도보다 4.6%인 12백만불이 감소한 179백만불이 수출되었고 변환장치는 전년도보다 45.5%인 38백만불이 감소한 46백만불이 수출되었으며 발전기는 전년도보다 5.7%인 3백만불이 증가한 46백만불이 수출되었다. 배전제어장치는 전년도보다 26.9%인 16백만불이 감소한 42백만불이 수출되었고 전동기는 전년도보다 0.7%인 1백만불이 증가한 34백만불이 수출되었으며 전기용접기도 전년도보다 17.9%인 5백만불이 증가한 30백만불이 수출되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수출감소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변환장치로서 45.5%가 감소하

〈표 4〉 중전기기의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년 도	변압기	변환장치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기용접기	차단기	전동공구	기 타	계
'93	264	79	44	46	31	24	16	24	76	604
'94	307	73	82	60	41	18	24	36	102	743
'95	369	115	86	59	49	65	33	59	122	957
'96	427	202	148	56	55	53	45	39	139	1,154
'97	416	171	135	67	94	52	36	37	147	1,155
'98. 1~6	179	46	42	34	46	30	17	15	64	473
년평균증가율 (93~97)	16.5	36.7	49.8	6.8	21.1	30.2	41.2	17.6	22.3	24.1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 통계

였으며 그 다음이 전압조정기로 28.6%가 감소하였고 배전제어장치도 26.9%나 감소하였다. 그밖에 애자류와 전극 및 자석, 전동공구도 각각 25~26%의 수출감소세가 나타났으며 개폐기도 12.8%나 감소하였다.

〈표 5〉 동기대비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변압기	변환장치	배전제어	전동기	발전기	용접기	차단기
'97. 1~6 (점유율)	191 (35.6)	84 (15.7)	58 (10.8)	33 (6.2)	43 (8.0)	25 (4.7)	15 (2.8)
'98. 1~6	179 (37.8)	46 (9.6)	42 (9.0)	34 (7.1)	46 (9.8)	30 (6.3)	17 (3.6)
'97 대비 증가율	-12 (-4.6)	-38 (-45.5)	-16 (-26.9)	1 (0.7)	3 (5.7)	5 (17.9)	2 (16.0)
전동공구	전압조정기	개폐기	전극·자석	전기로	애자류	기 타	계
20 (3.7)	11 (2.0)	8 (1.5)	3 (0.5)	3 (0.5)	0.7 (0.2)	41 (7.6)	536 (100)
15 (3.2)	8 (1.6)	9 (1.9)	3 (0.5)	7 (1.5)	0.4 (0.1)	37 (7.8)	473 (100)
-5 (-25.0)	-3 (-28.6)	1 (12.8)	0.6 (-25.7)	4 (141.8)	0.3 (-26.6)	-4 (-9.2)	-4.3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된 품목은 전기로 및 가열기로 전년동기 보다 141.8%나 증가하였으며 전기용접기도 전년동기보다 17.9%나 증가하였고 차단기는 16%, 개폐기는 12.8%의 수출증가를 보였다. 그밖에 발전기는 5.7%, 전동기도 0.7%의 증가를 보였다.

주요품목별 국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변압기, 개폐기, 전동기, 배전제어장치, 전기용접기, 전기로 및 가열기 등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 일본에는 변압기, 발전기, 변환장치, 전극 및 자석, 애자류 등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고, 미국에는 변환장치, 전동공구,

전기로 및 가열기, 차단기, 전압조정기 등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다. 홍콩은 전동공구가 가장 많이 수출되며, 말레이시아는 차단기 및 애자류의 수출이 가장 많고 배전제어장치와 전기용접기도 많이 수출되고 있다.

EU는 특별히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없으나 발전기, 전동기, 전동공구, 변압기, 배전제어장치 등 여러 가지 품목이 골고루 수출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대만도 발전기, 전동기, 배전제어장치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조금씩 수출되고 있다.

〈표 6〉 국별·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전 체					전 동 기					변 압 기				
	'93	'94	'95	'96	'97	'93	'94	'95	'96	'97	'93	'94	'95	'96	'97
일 본	105	145	180	234	201	9	10	11	14	11	46	54	65	65	66
미 국	137	120	153	165	156	15	16	20	13	8	34	34	41	35	42
중 국	30	51	89	184	196	1	3	5	13	26	13	20	32	62	70
홍 콩	54	61	80	99	81	1	0	0	0	1	36	40	51	58	51
말 련	43	39	68	94	69	0	3	1	1	1	22	11	31	36	21
E U	41	51	77	64	67	4	3	5	4	2	17	24	32	30	26
(독일)	16	16	26	10	12	4	2	4	0	0	2	3	4	2	3
싱가폴	33	40	50	26	18	9	10	3	0	1	16	14	18	18	9
대 만	21	19	22	24	30	1	0	0	0	0	14	12	16	18	11
기 타	142	217	237	264	338	7	14	14	11	18	66	98	83	95	119
계	604	743	957	1,154	1,155	46	60	59	56	67	264	307	369	417	416

구 분	배전제어장치					변 환 장 치					전기용접기				
	'93	'94	'95	'96	'97	'93	'94	'95	'96	'97	'93	'94	'95	'96	'97
일 본	4	7	7	8	8	22	41	55	101	65	2	3	5	5	4
미 국	5	5	6	1	2	40	17	30	61	53	1	1	2	1	2
중 국	1	1	9	39	20	2	2	3	14	20	5	5	6	20	11
홍 콩	0	0	1	0	1	2	2	7	11	7	0	1	1	3	2
말 련	13	16	13	20	30	0	0	0	1	1	1	1	14	7	6
EU	2	4	10	10	12	3	2	11	7	13	1	2	4	0	3
(독일)	2	2	2	2	1	1	1	7	2	3	0	1	0	0	1
싱가폴	1	2	4	1	0	2	1	3	0	0	0	0	1	0	1
대 만	1	0	0	0	1	0	0	0	0	1	1	1	1	1	2
기 타	17	48	36	69	62	8	8	6	7	10	6	4	31	16	22
계	44	83	86	148	135	79	73	115	202	171	17	18	65	53	52

《 수 입 》

우리나라의 중전기 수입은 배전제어장치, 전기용접기,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전극 및 자석, 전기로 및 가열기, 변환장치, 애자류, 차단기 등의 순으로 수입이 많이되고 있으며, 국별로는 '97년을 기준으로 일본, EU(독일, 불란서, 이태리 순),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의 순으로 수입이 되고 있다.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96년에는 전체 수입의 44%를 수입하였고 '97년에는 전체 수입의 41.4%를 수입하였으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7.0%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다른 국가보다는 성장세가 낮은 편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설비나 기술을 60% 이상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또다른 한 가지 이유는 급할 때 단시간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가 지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일본이 우리나라 제일의 수입국으로 유지되어갈 전망이다. 세계시장의 개방화정책에 따라 수입선다변화제도(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도)도 폐지되어야 하므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다시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와 미국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입국으로서 '95년까지는 EU가 3위 미국이 2위의 수입

국이었으나 '96년에는 EU가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왔다가 '97년에는 다시 미국이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EU에서는 '96년 총 수입액의 22%를 수입하였으며 '97년에는 총 수입액의 19.7%를 수입하여 년평균 16.1%의 높은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96년에 총 수입액의 21%를 수입하였으며 '97년에도 총 수입액의 21.2%를 수입하여 년평균 10.3%의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96년에는 우리나라 4위의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는데 '96년에는 '95년보다 70.8%의 높은 수입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97년에는 '96년보다 50.4%나 증가하여 년평균 59.2%의 높은 수입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7년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년도보다 수입감소를 가져왔으나 중국에서만

50% 이상이나 수입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중국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일 것이다.

금년들어서는 수입이 전체 평균 44.8%나 감소하였으나 중국은 19.5%의 감소에 그치고 있어 중국이 우리나라의 거대 수입국으로 변화되고 있다.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의 저임금과 부지 및 시설투자비가 적게들어 생산원가가 대단히 싸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중전기기 공장을 많이 짓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각국이 중국내에 현지공장을 많이 신설하여 가격경쟁력으로 대 아시아 공략 및 나아가서는 세계공략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의 중국 현지공장에서 많은 중간제품 및 완성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7〉 중전기기의 국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

년 도	일 본	EU(독일)	미 국	중 국	대 만	싱가폴	기 타	계
'93	874	300(139)	396	26	36	25	105	1,760
'94	1,151	371(155)	402	40	35	29	156	2,185
'95	1,436	530(270)	564	65	35	37	153	2,820
'96	1,298	639(282)	616	111	36	21	209	2,931
'97	1,144	546(209)	587	167	32	23	267	2,766
'98(1~6)	353	192 (75)	145	62	10	5	59	826
년평균증가율 ('93~'97)	7.0	161.1(10.7)	10.3	59.2	-2.9	-2.1	26.3	12.0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

대만과 싱가폴은 우리나라의 경쟁상대국으로 두 국가 공히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국가로서 최근 5년동안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앞으로도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상반기중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총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4.8%가 감소한 826백만불이 수입되었는데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4.1%가 감소한 353백만불이었고 다음이 EU로 전년동기대비 30.7%가 감소한 192백만불이었으며 미국은 전년동기대비 56.6%나 감소한 145백만불이 수입되었다. 중

국은 수입감소세가 가장 낮은 국가로서 전년동기대비 19.5%가 감소한 62백만불이었고 대만은 37.5%가 감소한 10백만불이었으며 싱가폴은 58.3%가 감소한 5백만불이었다.

수입금액으로 보면 일본에서 전년동기대비 278백만불이 감소되었고 미국에서는 전년동기대비 189백만불이 감소되어 이 두 국가에서 전체 감소액의 69.7%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에 제2위의 수입국에서 금년에는 제3위의 수입국으로 밀려났으며 EU가 다시금 제2위의 수입국으로 등장하여 EU로 부터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중전기기의 국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국 명	일 본	E U	미 국	중 국	대 만	싱 가 폴	기 타	계
'97. 1~6 (점유율)	631 (42.2)	277 (18.5)	334 (22.3)	77 (5.1)	16 (1.1)	12 (0.8)	128 (8.5)	1,496 (100)
'98. 1~6	353 (42.7)	192 (23.3)	145 (17.6)	62 (7.5)	10 (1.2)	5 (0.6)	59 (7.1)	826 (100)
증 감 (증가율)	-278 (-44.1)	-85 (-30.7)	-189 (-56.6)	-15 (-19.5)	-6 (-37.5)	-7 (-58.3)	-69 (-53.9)	-670 (-44.8)

주) 증감은 '97대비 '98의 증감임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

품목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배전제어장치로서 년평균 15.1%의 수입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93년에는 총 수입의 16.0%를, '95년에는 총 수입의 16.2%, '97년에는 총 수입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전기용접기로서 수입증가율이 연평균 18.3%로 가장 높은 수입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93년에는 총 수입의 8.9%를, '95년에는 총 수입의 11.3%, '97년에는 총 수입액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세번째 수입이 많은 전동기는 연평균 4.7%의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93년에 총 수입의 14.2%, '95년에는 13.1%, '97년에는 총 수입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기는 연평균 8.7%의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96년에 총 수입의 11.9%를 차지하였고 '97년에는 총 수입의 10.3%를 점유하고 있다.

변압기도 5번째로 수입이 많이되는 품목으로 연평균 7.3%의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6년에 총 수입의 10.6%를 차지하였고 '97년에는 총 수입의 9.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극 및 자석은 연평균 17.5%의 높은 구입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96년에 총 수입의 6.4%를, '97년에는 총 수입의 7.4%를 점유하고 있고, 전기로 및 가열기도 연평균 11.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96년에 총 수입의 8.6%를 점유하였고 '97년에는 총 수입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표 9〉 중전기기의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년 도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기용접기	변압기	전기로 가열기	변환장치	전극·자석	기 타	계
'93	282	250	204	157	212	126	114	108	307	1,760
'94	324	323	163	215	222	300	141	140	357	2,185
'95	457	332	268	320	278	421	136	183	425	2,820
'96	469	370	349	316	310	252	195	188	492	2,931
'97	495	301	285	308	281	193	161	206	566	2,766
'98. 1~6	171	95	80	66	101	28	58	82	145	826
년평균증가율 ('93~ '97)	15.1	4.7	8.7	18.3	7.3	11.2	9.0	17.5	16.5	12.0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

금년 상반기중의 주요품목별 수입실적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배전제어장치는 전년도보다 34.1%인 88백만불이 감소한 171백만불이 수입되었고, 변압기는 전년도보다 29.6%인 42백만불이 감소한 101백만불이 수입되었으며, 전동기는 전년도보다 41.4%인

66백만불이 감소한 95백만불이 수입되었다.

발전기도 전년도보다 54.3%인 96백만불이 감소한 80백만불이 수입되었고, 변환장치는 전년도보다 27.7%인 22백만불이 감소한 58백만불이 수입되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입비중이 가장 많

이 줄어든 품목은 전기로 및 가열기로 77.9%가 줄었고 다음이 전동공구로서 73.1%가 줄었으며, 전기용접기도 61.0%가 줄었다. 차단기는 59.1%, 개폐기는 58.5%, 발전기도 54.3%나 줄었다.

국별 품목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기용접기, 변압기, 전기로 및 가열기, 변환장치, 전극 및 자석 등이 수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변압기는 대부분이 소형변압기로서 전력용변압기는 거의 수

〈표 10〉 동기대비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품 목	배전 제어장치	전동기	전 기 용접기	변압기	변환장치	발전기	전기로 가열기
'97. 1~6 (점유율)	259 (17.3)	161 (10.8)	168 (11.2)	143 (9.5)	80 (5.3)	176 (11.8)	127 (8.5)
'98. 1~6 (점유율)	171 (20.7)	95 (11.5)	66 (8.0)	101 (12.2)	58 (7.0)	80 (9.7)	28 (3.4)
증 감 (증감율)	-88 (-34.1)	-66 (41.4)	-102 (-61.0)	-42 (-29.6)	-22 (-27.7)	-96 (-54.3)	-99 (-77.9)
전극 및 자석	애자류	전동공구	차단기	개폐기 부분품	전 압 조정기	기 타	계
108 (7.2)	55 (3.7)	35 (2.3)	31 (2.1)	13 (0.9)	8 (0.5)	129 (8.6)	1,496 (100)
83 (10.0)	33 (4.0)	10 (1.2)	13 (1.6)	5 (0.6)	8 (1.0)	107 (13.0)	826 (100)
-25 (-23.6)	-22 (-40.0)	-25 (-73.1)	-19 (-59.1)	-8 (-58.5)	0 (7.3)	-107 (-33.0)	-670 (-44.8)

주) 증감율 '97 대비 '98의 증감율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

입이 안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은 전동기, 변압기, 배전제어장치, 변환장치, 전기로 및 가열기, 전기용접기, 개폐기 및 부분품, 전극 및 자석, 애자류 등으로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

서 수입되고 있으며, EU에서는 전압조정기, 전동공구, 차단기가 가장 많이 수입이 되고 있으며 변환장치, 배전제어장치 등도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발전기가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

며 전기용접기, 배전제어장치, 변환장치, 전기 수입이 성장하고 있고 전동기가 62.8%, 변압로 및 가열기, 전동기 등이 많이 수입되었고, 기도 57.0%의 수입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되는 품목은 없으나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수입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품목들이 수입되고 있다. 변압기, 전동기, 변환장치 등이 수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변환장치는 연평균 88.0%나

〈표 11〉 국별·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전 체					전 동 기					변 압 기				
	'93	'94	'95	'96	'97	'93	'94	'95	'96	'97	'93	'94	'95	'96	'97
일 본	874	1,151	1,436	1,298	1,144	193	202	184	192	142	135	136	160	163	113
E U (독일)	300 139	371 155	530 270	639 282	5462 209	23 13	40 17	54 30	76 38	62 31	20 3	21 5	28 11	26 11	24 10
미 국	396	402	564	616	587	28	28	37	29	32	18	20	26	24	27
중 국	26	40	65	111	167	4	12	18	23	32	14	20	35	61	85
대 만	36	35	35	36	32	9	7	7	5	4	8	9	10	8	4
싱가폴	25	29	37	21	23	9	10	8	6	3	4	4	4	5	6
기 타	105	156	153	210	267	14	27	24	25	27	12	13	15	14	22
계	1,761	2,185	2,820	2,931	2,766	280	323	370	370	301	264	307	278	310	281

구 분	배 전 제 어 장 치					변 환 장 치					전 기 용 접 기				
	'93	'94	'95	'96	'97	'93	'94	'95	'96	'97	'93	'94	'95	'96	'97
일 본	116	156	213	205	185	34	43	50	65	37	95	123	177	180	117
E U (독일)	72 55	70 44	126 90	142 100	150 76	38 4	44 8	40 20	60 26	37 7	14 6	17 9	39 18	33 11	26 9
미 국	73	70	89	89	105	14	26	24	35	35	35	57	82	68	113
중 국	0	0	0	1	0	2	3	5	13	25	9	0	0	1	1
대 만	2	3	2	3	4	7	7	3	5	7	1	1	1	2	3
싱가폴	1	1	2	2	3	1	0	2	2	3	0	0	1	3	1
기 타	18	24	3	1	48	18	17	12	17	17	12	16	19	40	47
계	282	324	457	469	495	114	141	136	195	161	157	215	320	316	308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